

산지기네

全東壽 / 作

(등장인물)

- 김씨 (50대 후반, 산지기)
- 아내 (산지기의, 아내)
- 복동 (큰아들)
- 복식 (작은아들)
- 복녀 (딸)
- 연장
- 이장

깊은 산중에 자리잡은 산지기네 집. 큰 산허리를 뒤로 남은 草蓐한채 웅크리고 있다. 단칸 방문이 하나 보이고, 방문 앞에 토방이 놓여 있다. 집 좌측에 부엌이 있고 그 옆으로 뒷간이 딸렸다. 무대 좌후면에 나직히 형성된 언덕이 보인다. 음산한 허공, 그 언덕너머 어딘가에 廢坑이 하나 있음을 암시한다. (무대에 경석에 등작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실루엣 장치가 필요함.) 언덕 앞에는 웅달샘이 있고 주위에 장독대도 보인다. 무대 후후면은 산관 언덕. 울창한 수목들 사이로 평소 산지기 김씨가 다니는 산관길, 트여있다.

(이 연극은 초막(중양)의 토방 부분을 중심한 무대 좌우 후면의 언덕을 잇는 여러개 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맹, 효과에 의한 장면 전환은 신속한 것이 좋겠다.)
이웃고 막이 오르면 이름불, 한 낫
김씨 산새들 소리 들려오는 가운데, 아내, 부엌에서 허드레 물통을 들고 나와 생각이 갖다 놓고 물문을 튄다.

아내 : (토방 앞에서 코를 땀 흘리는 해를 힐끔 올려다 보더니) 임? 어이구 새 놓치겠네... (서둘러 우측 산관을 향하여) 여보! 여보요!

김씨 : (E) (벌러서) 어이!

아내 : 걸심 자시유.

김씨 : (E) (벌러서) 알았네.

아내 : (혼자 소리로) 시장 하실텐데... (좌측 언덕 앞으로 가서 복동아(응답이 없자 약간 신경질적으로) 아! 복동아.)

(사이)

김씨 : (우측 산관 언덕에서 홀로 등장, 땀과 사을 어깨에 올려졌다. 흙 배에 찌든 의복 차림)

김씨 : (군사령 거리듯) 헛 물배도 뭍어 여간 찰찌지 않아. 지난 겨울엔 새 콩고 눈도 많이 내리더니만... 후후후... (땀이와 사을 헐거워 세우고) 별소리 다해도 금년엔 새도목을 뿌리 내림이 모두 실패할세?
(아내, 부엌에서 나온다.)

아내 : (사방을 두리번 둘러) 애들은요?

김씨 : 애들?

아내 : 작은 것을 둘이 산관에 안올라 갔습니까?
그만큼 일었는데.

김씨 : (어물어물) 어, 아까 올라오긴 왔더군요.

아내 : 꼭 잡고 일쯤 시키지요?

김씨 : 일? 헛?

아내 : 왜요? 어디로 내했어요, 또?

김씨 : 글세, 요놈들 새가지 좀 보지요...산관에 올라 오더니만 일은 고사하고 당장 노릇만 내놓라는 게야.

아내 : 또 그소릴 해요?

김씨 : 기어코 짐을 나가겠네.

아내 : 그래서요?

김씨 : 작대기로 동쪽을 한대씩 췌러 췌더니만 두놈들 죽다니고 업살을 떨며 다라나드군.

아내 : 지린 새끼들이라니... 그놈 어디로 다라났기에 코끝도 안보지요?

김씨 : 흠, 걱해야 큰놈이 들어 있는 구덩이 숙일티지. 뭐.

아내 : 어이구 경을 칠 놈들... 쫓겨... (부엌으로 다시 들어간다.)

김씨 : 손으로 의복을 뽐뽐 털어 헛, 울배엔 바람기가 제법 싸 해. 한 여름엔 폭더위가 오려나... (생가로 가며) 출산, 뼈가나무순, 쪽쪽 솟는걸 보면 작년보다 칠이 이른것 같기도 하고... (해야에 겹물을 퍼 세수한다.)

아내 : (부엌에서 방상을 들고 나오며) 찬발 새끼들 때문에 오장 뒤집혀 못살겠어요. 요 것들을 그냥 산관나무등껍데다 발목정일 파 묶어 놓든가... (마부에 놓으며) 아니면 죄놈들 원래로 아예 집 구석에서 내 쫓아버리든가... 양단간에 절판을 내아주... 칼세. 괜만큼 속을 혁어야죠. 제 길로 한걸씩 다 큰 새끼들이 세상에 고향에 베풀어치서야. 원...

김씨 : 흠, 입살 좋으면, 알아서 하게... (세수를 끝내고 허리춤에서 수건을 풀어 얼굴을 훑으며) 난 이제 상관없게 죄놈들이 어찌되든... 짐을 나가든 비려 치먹든... 그러니 임자 알아서 하라구, 새끼들 발목정일 묶든가, 집에서 내 쫓아버리든가. 응.

아내 : 어허, 여보.

김씨 : 예빈 용달만쯤 썼어, 흠. 그래, 죄놈들 울게 되라고 혀가 닳도록 달래도 보고 지칭구도 취했지만... 말상 허사여...

아내 : 이구, 요는 큰놈이 문제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고녀석, 맘보가 비틀러서 제 동생들도 덩달아 그러는게 아니겠어요? 큰 것이 부모 앞에서 콧방귀를 통통 췌니까 밀갠것들이 뺏기는걸 봐요. 그러니 우선 큰 것부터 취잡이 봐야겠어요. 임? 오늘날은 요새끼들 단단히 구실물들요. 움작 달락도 못하게...

김씨 : (얼른) 틀렸어. 그들은 벌새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는 놈야. 누구 탓인데? 이제 와서서는 그놈 맘을 구실물자고? 번덕 좋네? 애초에 그놈이 구덩이 속에 들어갈 까놓고 하라구 누군데?

아내 : 여보, 처음에야 그녀석이 하라구 금을 캐서 버락부자가 좀, 꽤 보였다고 안달을 해대기에 그만...

김씨 : 열받진 인간들! / 금을 캐서 버락부자가 돼? 어디서... 쫓겨... 내가 몇번 말했나? 그 구덩이인 예전에 금맥이 끊겨서 버려졌던 폐굴이야. 그런데 금을 바래? 오늘날에 황소풍일 떨어지길 기다리지!

아내 : 다행으로 한대 깨달았요. 그래도 예전엔 이름난 노다지 굴이어서니까 막장을 다시 파면 금 굴이 꼭 잡힐거라고... 왜 전에 금껍꺼 노릇을 했었다는 부락 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안던가요?

김씨 : (화가 치민다.) 비벼먹을 인간들. 똑같은. 열받진 놈을 골라먹는 노인일마. 노인들의 거짓부렁에 속기해서 열이백진 놈이나 응.

아내 : 하여간 큰놈은 심보가 너무 부패하게 말이예요. 말하는 것 좀 봐요. 어디서 쫓아들은 꼴랄런지... 뭐 지금 시대에 문명인 구실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뽐뽐 할려면 퍼니퍼니 해도 금을 캐야 한다고.

김씨 : (언덕을 향해) 예끼 시진발진 새끼! / 웅덩이 불이나 써라구!

아내 : 할말에는 그럴 법이야 한 소리가 아니겠어요?

김씨 : (화를 못참으며) 암, 그럴법 해. 그러니 임자도 빨리 가서 그놈과 함께 버락구 덩일 뒤져서 잡고 뿔해?

아내 : (위축되어 눈물 흘리며) 애고 이 양반은 차양?

김씨 : 예미가 저 머우니 자식들이 모두 그도망이지.

아내 : 어허? 그럼 배려 죽어도 산지기 자식 노릇은 못해먹겠다는 새끼들을 어떡 현대요?

김씨 : 그래, 못해 먹었으면 말제. 누가 죄놈들 잡고 사정헌대.

아내 : 이제 특 하던 조상 닷. 부모 원망 퍼부는건 아주 예사예요.

김씨 : 인두로 햇바닥을 눌러 줄지야. 요놈들.

아내 : (한숨) 애고, 정말 속상해서...

김씨 : 저 집안에 든 몫문있는거 단단히 꼬블쳐 놔. 간행이 본 새끼들이 무슨 짓을 못해. 돌아오는 장날엔 식량도/판아야지... 양철을 조금 사다가 우선 지붕 용 마름이라도 갈아 볼 작정인데...

아내 : 허, 요까지 다 쪼그러진 초막. 용마름만 팔아 뿔 하지요.

김씨 : 그래도 어쩔말야.

아내 : 이구 우리 어느 시절에나 남들처럼 비둘기집 같은 데서 살게 될까지...

김씨 : 또 그놈에 소리... 아 당장애야 꼬복한 수가 없잖아?

아내 : 그래요, 어서 밤이나 먹읍시다.

김씨 : 어, 그래

(두사람 방으로 들어가면 토방 아무워진다. 무대 좌우면 언덕길 위로 복동, 복식, 복녀 등장한다. 복동은 땀과와 간드레를 들고 생가에 차 있으나 복식과 복녀는 몹시 차분한듯 흐느적 거린다.)

복식 : (언덕위에 주저 앉으며) 예잇, 배는 고프네. 집구석에 들어가는 걸고...

복녀 : 나두... (털색 주저 않는다.)

복동 : (잠을 노력하며) 지긋지긋한 놈에 초막, 불이나 확 확 질렀으면...

복동 : 아새, 이말. 이 형 밥줄 끊길라 해라... (땀이, 간드레를 높이 들며) 아, 나도 빨리 금굴을 잡아야 해.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께 큰 소릴 질 수 있거든?
(외지듯) 야 금굴이 잡혔다! / 황굴이다! / 와하하... 야 니들도 집 나갈 생각하고 나랑 함께 금을 캐자 응!

복식 : 희망없는 짓은 안해!

복동 : 별신야! 등잔 밑이 밝았다. 좀 좋으나? 내집 곁에서, 어머니가 지어 주시는 뜨신 밥을 먹고 금을 캔다...어때... 아무러면 타향살이에 비하겠니? 배 위를 두터우고 집나가 봤자 헛일이야. 어디? 서울? 얼빠진 몽장자지 같으니.

복녀 : 어디머?

복식 : 왜 이래. 형.

복동 : (연을 울리듯) 친한 산지기 새끼들이 별 수 있겠니? 게다가 맨주먹 빈털털이야. 예잇 알지들! / 쫓겨... 생각들 해봐... (눈이) 지금은 엄연히 고도문명 시대야. 명심하라구.

복녀 : 웃. 그 소리 골백번도 더 듣는군.

복동 : 왜! 골백번만들 못듣겠니? 너들 내말 잘 들어야 한다.

복식 : (전성) 맞아. 고도 문명시대야.

복동 : 어엿든 문제는 돈야. 돈, 돈만 왕장 거머쥐어 보라. 어디? 서울... 그 까지고 고도문명 사회?

복녀 : 큰 오빠.

복동 : 우리는 실컷 누리고 산다. 이거야, 알겠니들? 해해...

복식 : 그래서? ... 형은 그 구덩이에서 정말 금이 왕장 쏟아질 줄 믿는거야?

복동 : (크덕) 암. 믿고 말고... 두고 봐라 틀림없을테니까, 해, 너들 내 기본 모를겨야. 막장에서 금이 좌르륵 쏟아질것만(살아 가슴 찬디니까, 좌우간 소릿치에 금껍꺼 노릇을 했다는 그 노인들 말이 맞아. (진지하게) 옛날 왜정때 예진대, 그러니까 당시 이 골짜기에 즐린 많은 금구덩이 중에서도 지금 내가 췌고 있는 구덩이가 (엄지를 꼽으며) 제일 노다지 경이었다. 이거야.

복식 : 지금은 금맥이 없는 폐굴이잖아.

복동 : 폐굴? 임마! 막장을 다시 파면 금굴이 꼭 잡힌다. 이거야.

복식 : 그걸 어떻게 믿어.

복동 : 너 정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복녀 : (얼굴) 아버지 말씀이 옳아. 부락 노인들이 콘오뎨 골려 주려고 부락 중동될 뻔던거래.

복식 : 그래 맞아!

복동 : (성을 내며)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산관에 나무뿌리, 풀뿌리가 어떤다는 것 밥... (사이) 두고봐, 내가 예전엔 그 노다지 금굴을 꼭 다시 잡고 말테니까...

복녀 : 그래 잘해봐. 콘오뎨가 노다지 가면 우리도 좋지 뭐.

복식 : 암 좋지요... (부녀와 눈짓을 주고 받다가) 저 그걸 그렇게, 형.

복동 : ... 뭐야.

복식 : 형이 우리 노릇은 좀 귀 주겠어? 가서 벌번씩 갈아줄게 응?

복녀 : 부락애 콘오뎨.

복동 : 너들... 정말 집 나갈거야?

복식 : 그래.

복동 : (해리) 좋아. 정 그렇다면...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다가) 어? 한데 지금 내겐 한푼도 없는데. 어찌지, 응?

복식 : 뭐야?

복동 : 어, 몇푼 있던져, 저금때 (간드레를 보이며) 이 간드레를 사드라고 다 췌 버렸거든.

복녀 : (실랑) 에이 참.

복동 : 어 전다... (궁리하다가) 응, 좋은 수가 있다... (큰 소리로) 내가 아버지를 설득시키마, 응?

복식 : 말상 헛일이야. 한 두번 풀라분출 알아. 뽐뽐이 절질이나 안당하면 다형이지.

복녀 : 정말야.

복동 : 열마, 아무러면 내가 너들 하고 같겠니? 난 어디까지나 장냐야. 너들 내 말만 알아?

복녀 : 자신있어?

복식 : 어엿든 꼭 짐을 나가겠어, 암만 잡아 두려고 움푹을 떨어도 안될걸? 생각해봐! / 우리가 죄인야? (울분을 터뜨리듯) 왜 산속에만 쳐박아 두려는 거지? 남과 같이 자유롭게 세상에 나가서 맘대로 살 권리가 있다가, 저금이 어느 편야? 요, 앞 부락애라도 한 번 나가봐. 산간 벽촌도 옛 말야. 모두 번듯한 양곡집 들 있고 환한 전깃불에 텔레비, 냉장고까지 사들이는 집들이 태반이야. 자식들 공부도 원래로 시켜주고... 우린 뭐야? (쳐주러듯) 침침산중에 골막친 인벌레/대대손친 이어 밤은 산지기 신세 / 자식에게 셋 있는 거를 쓰고 달친 것이 겨우 국명하고 졸업야. 그해 놓고 충분하다는 췌지. 일일살사오류칠갑구신, 장구 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헛 한굴 캐졌으니 됐다요? / 창창 산지기나 풀러갈 속셈이니, 그럴테지?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만 말야? 그럼 형 말 작으우 엄연한 고도문명 시대야, 우리도 그 맛 좀 봐야잖아? 안그래, 형?

복동 : (복식의 어깨를 치며) 맞아. 역시 너두 속이 있는 놈이구나? 암 그래! 그러니 어떡하든 빨리 돈을 벌어야해. 췌의 조상 닷, 부모 원망... 자꾸 해 봤자 별 수